

경제 안정 고용 탄탄...일상 즐기며 야심찬 미래 설계

중국·일본 청년들 지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어떤 일상을 살고있을까. 중국 청년들은 금로벌하고 패기만만해 보였다. 미래를 밝게 보며 낙관하고 있는 편이다. 일본 청년은 빠듯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힘든 하루를보낸 뒤에는 친구들과 젊음을 만끽하며 여흥을 즐긴다. 중국 대학생 2명, 일본 미혼여성 1명의 하루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제회의·자원봉사...카지노 즐기며 英유학 준비

마카오 과기대 4학년 왕신남

내 이름은 왕신남. 마카오 과기대 4학년 학생이다. 호남대학교에 유학중인 친구 후루이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꿍이다, 우리는 취미가 서로 맞아서 빠르게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항상 친구가 많다. 평소에 마작을 좋아하고 골프를 자주 한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계란 3개하고 바나나 하나를 먹는다. 왜냐하면 맨날 헬스장에 가는데 이 식단이 더 건강하고 칼로리도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음식을 적당하게 다양하게 먹으면 운동효과가 더 난다.

오늘은 제5회 마카오 경제무역 회담이 개최되는 날이다. 중국 정부는 회담 장소를 마카오 과기대학으로 정했다. 나는 이번 대회에 스태프로 등록해서 대회진행을 돕는다. 국가 총리 리커창님 참석하는 대회이니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행사를 돕는 것은 나에게도 큰 경험이다.

리커 창 국무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국가들에게는 제로 관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으로 포르투갈어 권 국가들과 중

국은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행사는 오전에 모두 끝났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듣는다. 나는 전공이 영어다. 1~2학년 때 여름방학때마다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익혔고 현지 아르바이트도 했기 때문에 내 영어는 유창한 편이다.

저녁에 귀가하여 식사를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다. 야채와 고기로 적은양만 먹는다. 밤에는 학교에서 공연이 있다.

드디어 학교 행사 왔다. 나는 이 공연을 위해 1달 동안 준비했다. 내가 맡은 것은 공연 사회자역할이다. 많은 학생들과 마카오 시민들이 참석했고 공연은 멋지게 끝났다. 물론 나는 사회를 잘 보았다.

공연이 끝나자 공연 출연학생들과 어울려 마카오에서 유명한 카지노에 갔다. 카지노는 마카오에서 제일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내일은 휴일, 그래서 우리는 카지노에서 나와 노래방엘 갔다. 다들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한국 광주에 있는 친구 후루이와 화상통화를 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지금 아직 대학생이어서 과외 활동 많이 참

여하고 미래 사회생활의 기초를 다진다. 시간이 여유있을 때 책을 많이 읽고 나의 문화소양도 향상시키고 있다.

젊을때 많이 경험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하면 인생의 선택도 많아지고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잘 잡을 수 있다.

나는 졸업을 하면 전공인 영어를 더 공부하기위해 영국으로 가서 대학원에 다니려고 한다. 영국가서 더 풍부한 경험을 쌓고싶다. 영국에서 선진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중에 중국에 돌아오면 배웠던 지식을 다음 세대한테 전달하고 배양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중국에는 이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이제는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다. 가정이나 사회의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경험중이고 꾸준히 진보하고 있다. 한발 한발씩 노력한다. 가끔씩 방황이 있어도 자기가 선택한 길은 꾸준히 가야된다. 젊은 날의 혼란과 방황이 너무 크면 안된다.

지금 우리 중국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부모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모두 좋은 자원과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우리의 미래는 부모님들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왕신남군과 친구들. 앞에서 두 번째가 왕군.

더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년시대에 어느 순간도 안전한 생활만 해선 안된다. 지금은 중

국청년들 분투 노력하면, 국가도 우리 때문에 더 강성해질 것이다. <번역=후루이 학생기자>



황귀청군의 등교모습. 집에서 학교까지 30분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한다.

산악자전거 즐기는 경제학도...호텔리어 꿈꾼다

충청시 대학생 황귀청

나는 중국 충칭(中京)시의 양조노벌대학교(長江師範學院)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후양귀청(?奕程)이다. 고향 충청시 푸링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세대 청년들은 대개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닌다. 학비걱정 용돈걱정은 별로 안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낭비하고 살지는 못한다. 학생신분에 맞게, 그러나 친구들과 즐기기도 하면서 지낸다.

충청시는 중국의 서부내륙에 있다. 남쪽에는 양쯔강이 있고 동쪽에는 우장강이 있다. 날씨는 항상 덥고 습기가 많다. 지리와 환경은 사람의 성격에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충칭 사람들은 매사에 느긋하고 서두르는 법이 없다. 나의 성격도 낙천적인 편이다.

나의 학과 전공은 경제학이고 취미는 천문학이다. 시간이 나면 항상 별이 잘 보이는 교외의 산에 올라 별자리를 관측한다.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 별자리 관측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즐겁다.

아침식사는 대개 사야오 면이라고 부르는 충칭식 국수를 먹는다. 이것은 충칭에만 있는 국수인데 고기국물에 야채를 넣어 매우 맛이 구수하다. 아침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매일 사야오면을 먹는다. 매운것도 있고 안매운 것도 있는데 맛은 공통점이

많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엘 간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해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데 전공수업은 대부분 오전에 한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를 이용한다. 30분정도 걸리는데 도로사정이 좋아 불편이 없다. 어머니는 매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학교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행복하다. 매일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도 좋다. 저녁식사는 고기와 야채, 생선들이 어울린 성찬이다. 저녁식사를 잘 먹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말 낮이면 자전거 하이킹을 나간다. 충칭 주변에는 산이 많은데 그래서 마운틴 바이킹이 유행하고 있다. 위험하지만 짜릿하다. 또 때때로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야유회를 한다. 여름에는 43도~45도의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우리는 시원한 산위에서 바비큐 파티를 한다. 샤브샤브를 먹기도 하는데 샤브샤브는 충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다. 환경 때문에 충칭과 인근지방 사람들은 매일 고추를 많이 먹는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윈난성(雲南省) 대리(大理)시에서 살고싶다.왜냐면 대리시는 중국의 유명한 여행 도시이고 기후가 좋고 공기, 풍경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 중에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은 별처럼 많다. 나는 졸업 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파리에서 일하다가 돈을 모아 해변의 휴양지에 멋진 호텔을 지어 경영하고 싶다. 아름다운 호텔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휴양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중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싶다. <번역=쉬평신 학생기자>

자유로운 직업 행복해...“오늘도 괜찮은 하루”

일본어 가르치는 시바타 사야카

am.6 : 00 오늘도 알람이 울린다. 빨리 일어나라는 지저운 알람소리에 맞추어 나는 일어난다. 빠르게 샤워를 하고 어제 마트에서 산 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데워진 빵과 차를 들고 부랴부랴 집을 나선다.

나는 후쿠오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10시 수업시작에 맞춰 오늘도 뛰어서 버스정류장에 가느라 숨이 찬다. 일찍 일어나도 매번 시간에 쫓긴다.

어제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피곤했던 탓인지 버스에서 조금 졸았다. 교실문을 열자 날 반겨주는 학생들. 어색한 발음으로 “오하요 센세(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인사해 주는 학생들. 이순간이 내가 일을 하는 이유이다.

한일 양국 국민들은 이처럼 매우 가까운데 정부가 끼어들면 일이 복잡해지는 게 늘 아쉽다.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지금의 일이 나의 영원한 직업은 아니겠지만 얼마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 보다는 자유롭고 내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 직업이 너무 좋다. 먼 장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생각한대로 나의 인생이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학생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수업 시작이다. 나는 열심히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나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pm.1 : 00, 학교 식당에서 대충 밥을 먹은 후 또 수업을 시작한다. 2시까지 연강을 하면 녹초가 된다.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학교 앞까지 와있었다. 내 파운데이션.....립스틱.....빠른 순

발력으로 준비를 끝낸 후 반갑게 남자친구와 만나 카페를 간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남자친구가 과제가 있다고 해서 과제를 하고, 나도 수업준비를 한다. 그렇게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 된다.

난 음식점에서 홀 알바를 한다. 역시나 오늘도 시간이 안간다. 5시간의 알바가 끝난 후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이자카야로 간다. 오늘은 내 친구 에리카짱과 모모코짱의 생일파티이다.

케익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의 피곤함을 맥주 한잔과 친구들과과의 시간으로 날려버린다.

어느덧 pm.11 : 00...내일을 위해 집에 와서 잠을 청한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친구 에리카짱과 모모코짱의 생일파티에서 함께 어울린 시바타의 친구들. 맨 뒷줄 가운데가 시바타씨

언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예비언론인을 길러냅니다.